

# 이 대통령 “중동상황 언제 정리될지 알기 어려워… 경제체제 근본적 변화해야”

이재명 대통령은 9일 중동전쟁 상황과 관련해 “오늘도 휴전했다고 하면서 폭격이 있었다고 한다”며 “언제 이 상황이 정리될지 알 수 없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국민경제자문회의 제1차 전체 회의를 주재하고 “중동전쟁에 대해 단기적으로 보면 중동전쟁이 우리 경제에 상당히 큰 위협을 가하고 있다”며 “대한민국 경제 체제가 근본적으로 변화해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이어 “한편으로 보면 위기가지만 또 한편으로 보면 기회이기도 하다”며 “집행을 담당하는 우리가 어떤 마음의 자세로 어떻게 노력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단기적·중기적·장기적으로 잘 대비해 국민이 고통을 겪지 않고 희망적인 미래를 누리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 국민께서는 언제나 위기 국면이 되면 과거 금 모으기처럼 국가 전체, 공동체 전체를 위해 함께 노력하는 정말 위대한 국민들”이라며 “이번 위기 국면도 모두가 변화를 받아들이 마음의 자세를 갖게 되기 때문에 이 국면을 기회로 만들어 새로운 시스템을 구축하는 정말 좋은 계기가 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는 대통령 경제 자문 기구인 제1기 국민경제자문회의의 출범 후 처음으로 열리는 것으로, 중동 전쟁에 따른 비상 경제 상황에서 위기 극복과 지속 가능한 성장 전략을 논의했다.

국민경제자문회의 1차 전체회의… 중동발 위기 대응·지속성장 논의

“중동전쟁 위기지만 기회… 변화 받아들이며 새로운 시스템 구축”

“소액주주 배당소득세 혜택 일리 있어… 장기보유 인센티브 검토”

“증권거래세 역진성 있어, 양도소득세 같은 수준에서 바꿀 필요”

김성식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은 중동 상황과 관련 혁신을 통한 ‘대체 불가한 전략국가’로 전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 부의장은 “아시다시피 이 전쟁은 끝난 게 아닐 것”이라며 “호르무즈 해협은 안전 통행이 가능한 해협에서 차단기가 있는 톨게이트로 바뀌고 있고, 미국은 전쟁하면서도 계산기를 두들기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규칙이 무너지는 분절적 국제질서 속에서 국가 차원의 대체불가성을 확보해 상대가 쉽게 배제하거나 압박하기 어려운 전략적 위치를 서야 한다”며 “기존의 중견국론이나 선진국론과는 접근이 다르다. 경제적 수익성뿐만 아니라 공급망과 안보를 함께 고려하는 것으로, 산업 정책에서 경쟁 우위뿐 아니라 대체불가성을 고민해야 한다”고 했다.

김양희 경제안보분과장은 “경제 안보 관련 정보를 한데 모은 정보포털을 구축하고, 전략을 총괄하는 경제안보전략팀을 청와대 내에 구성해야 한다”고 했다.

박원주 전략경제협력분과장은 에너지 수급과 관련 “2주 휴전 기간이 끝난타입으로 이 기간 에너지 물량을 최대한 확보

해야 한다”며 “원전은 정비 일정을 조정해 겨울엔 최대한 가동하고, 수명이 종료된 원전도 한시적으로 계속 운전할 수 있는 근거를 뒤야 한다”고 제안했다.

석유 최고가격제에 대해서는 “시장 안정에 결정적으로 기여하고 있으나 장기화가 예상되는 만큼 지금부터는 단계적으로 철폐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경제구조 전환과 관련해서는 부동산에 묶여있던 돈이 자본시장으로 흘러가는 생산적 금융으로의 대전환이 정부의 최우선 과제라고 재차 강조했다. 이를 위해 소액 투자자들을 위한 배당소득세를 비롯해 장기 보유 세제 혜택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증권거래세와 양도소득세 등의 세제 개편도 거론했다.

이 대통령은 김동환 자문회의 성장경제분과 민간자문위원이 “정부가 한시적으로나마 배당소득세에 세제 혜택을 줘서 장기 투자를 유도하는 게 어떻겠느냐”고 제안하자 이렇게 답했다.

이 대통령은 “일리 있는 말씀”이라며 “검토해 봐야 할 것 같다”고 했다. 이어 “장기 보유에 대한 인센티브를 도입해야 하는데 경영권을 행사하는 지배주주들만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민경제자문회의 제1차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테 이익이 몰아질 가능성이 크다”며 “소액 주주들만 대상으로 하는 것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고 당부했다.

현행 증권거래세에 대해서는 “거래세는 손해를 보든 이익을 보든 다 내는 것이어서 문제가 있다”며 “돈 못 버는 사람도 다 내는 역진성이 있어 언젠가는 거래세와 양도소득세를 같은 수준에서 바꿀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부동산 투기 억제 대책과 관련해서는 기업이 보유한 ‘비(非)업무용 부동산’에 대해 세 부담을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무슨 수를 써서라도 부동산 투기를 못 하게, 이익 보는 게 불가능하게 만들어야 한다”며 이렇게 말했다.

이 대통령은 “기업의 비업무용 부동산에 대해 과거에는 대대적으로 규제한 적이

있는데, 지금은 사라진 거 같다”면서 “별도 항목으로 검토해서 기업들이 당장 필요한 것도 아닌데 쓸데없이 대규모로 갖고 있는 부동산에 대대적 보유 부담을 안기는 방향으로 검토해 보자”고 했다.

이어 “어차피 주택 문제의 다음 단계로 농지, 그다음 단계는 일반 부동산으로까지 확장해 나갈 것”이라며 청와대 정책실제 이와 관련된 검토를 지시했다. /뉴시스

## 민형배, 무안 대전환 구상 발표… “미래복합도시 구축”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경선 후보가 9일 광주군공항 이전과 맞물려 공항·산업·에너지·사람이 함께

“광주군공항 이전과 맞물려 공항·산업·에너지·사람 결합”

깨 모이는 미래도시 무안으로의 전환 구상을 발표했다.

민 의원은 이날 정책자료를 통해 “군공항 이전은 단순한 시설 이전이 아니라 대한민국 산업과 국토 구조를 바꾸는 국가 프로젝트”라며 “보상이 아니라 무안의 미래로 보답하겠다”고 밝혔다.

민 의원은 현재 무안국제공항이 연간 520만명 수용 능력을 갖추고 있음에도 실제 이용객은 60만명 수준에 머물고, 가동률이 12%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2023년 253억원의 영업적자를 기록한 상황을 지적하며 “공항의 문제가 아니라 사람과 산업이 연결되지 못한 구조적 문제”라고 진단했다.

민 후보는 무안공항을 대한민국 제2 관문공항으로 육성하는 전략을 제시했다.

국제선 중심 공항으로 전환해 미주·유

럽 장거리 노선을 확대하는 한편 KTX 직결을 통해 전국 2시간 생활권을 구축하겠다는 구상이다. 중장기적으로는 연간 1000만명 규모 공항으로 성장시키겠다는 목표다.

산업 전략으로는 공항과 에너지·첨단 산업이 결합된 공항경제권 구축을 제시했다. RE100(재생에너지 100%) 국가산업단지 조성하고 항공정비(MRO) 및 항공부품 산업을 집적하겠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AI(인공지능) 데이터센터와 반도체 산업을 유치해 글로벌 기업이 몰리는 산업 생태계를 만들겠다는 전략이다.

에너지 기본소득 도입도 핵심 정책으로 내세웠다. 공공주도 재생에너지 확대를 통해 발전 수익을 군민에게 환원하고 전기를 생산하는 도시를 넘어 전기로 소득을 창출하는 구조로 전환하겠다는 방침

이다.

농업 AX(Agri-AI Transformation) 전략도 제시했다. AI와 데이터 기반으로 농업을 재설계하고, 농기계·센서·로봇 등 농업 소부장 산업을 육성해 가공·유통·수출까지 연결되는 K(케이)-푸드 플러스 산업 생태계를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양파와 고구마 등 지역 특산물을 기능성 식품과 글로벌 브랜드로 확장해 농업의 부가가치를 높이겠다고 설명했다.

군공항 이전 부지에는 공항·산업·주거·교육이 결합된 에어로시티를 조성할 계획이다.

RE100 기반 탄소중립 도시와 AI 기반 스마트 도시를 구축하고, 청년과 가족이 정착할 수 있는 인구 20만명의 자족형 도시로 발전시키겠다는 전략이다.

민 후보는 “공항을 살리기 위해 사람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몰려와 공항이 살아나는 구조를 만들겠다”며 “무안을 공항도시에서 산업수도로, 에너지 생산지에서 소득도시로, 농업지역에서 미래 산업도시로 완전히 전환하겠다”고 강조했다. /뉴시스

김영록, 공공요양원 30곳으로… ‘간병에서 치매 안심까지’

9일 저소득 노인 간병비 100만원 지원, 간병비 파산 막겠다

김영록 민주당 전남광주특별시장 예비 후보는, 민간에 비해 간병비 부담이 절반 수준인 공공요양원을 30 곳으로 늘려 설립하는 등 내용이 포함된 노인복지 공약을 9일 발표했다.

광주·전남의 65세 이상 노인 인구는 전체의 20%를 훌쩍 넘어섰고, 치매 환자도 가파르게 늘고 있다. 하지만 지역사회의 차원의 대비태세는 여전히 걸음마 단계로, 많은 환자들이 요양병원으로 내몰리고 가족들은 ‘간병 파산’의 위기 앞에 속수무책인 현실이다.

김 예비후보는 우선 현재 12곳에 불과한 공공요양원을 30 곳까지 늘려 설립한다는 계획이다. 시군구 당 1곳 꼴로 특별시 어디서나 살던 곳 근처에서 요양할 수 있게 한다는 생각이다. 또 노인 간병 수요 증가와 간병비 부담에 대응, 저소득층 노인의 간병비 지원을 제도화하겠다는 의지다. 70 세 이상 노인에게 년 100만 원까지

지원한다는 구상이다. 전남광주형 치매안심 마을 5곳을 시범 조성하겠다는 약속도 내놨다.

이는 기존의 집단 수용 시설과는 궤를 달리해, 환자들은 관리의 대상이 아닌 생활의 주체로서 일상을 영위하게 된다.

예컨대 치매 노인 4-6명이 한 집에서 가정을 이루어 공동체 생활을 하는 ‘유니트 케어(Unit Care)’ 방식이다. 개인의 방은 별도로 마련해 프라이버시를 보장되, 거실과 주방을 공유하며 사회적 고립을 막는 구조다. 마을 전체는 거대한 ‘치매 안전지대’로 설계돼, 환자들은 마을 내 조성된 산책로와 커뮤니티 공간, 상점 등을 자유롭게 오갈 수 있다. 김 예비후보는 “가족 중 한 사람이 쓰러지는 순간, 가족의 삶까지 멈춰버리는 비극을 김영록이 끝내겠다”며 “간병에 치매까지, 병원비 걱정 없는 통합특별시를 향한 여정의 맨 앞에 서겠다”고 말했다. /김병남 기자

**Self 장어명가 청산 광주점**

**장어명가 청산 광주점 - 약품을 쓰지 않은 장어만 판매**

**영광 법성포 청산양만 명품 장어**

**無항생제 無균 無소독제!**

1일 18회 순환여과 및 미생물 배양 정정시스템으로 국내산 청정 명품장어

**HACCP**  
(위해요소관리우수)  
해양수산부

**무항생제**  
(NON ANTIBIOTIC)  
해양수산부

위해요소 중점관리기준 (HACCP) 적용지정업소  
해양수산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인증번호: 제 AQ-0026

인증기관명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인증번호: 제15-18-0010

**전국 500여 양만장중 무항생제 지정업소 단 1곳**  
**전국 500여 양만장중 HACCP 지정업소 단 3곳**

**예약문의 T. 062)233-9592**

**광주 동구 내남동 330-3(월남지구 호반2차 옆 슬바우주유소 옆)**

**저희 장어명가 청산 장어는 국내유일 무항생제 인증과 해썬(Haccp)으로 인증된 양어장에서 "무항생제, 무균, 무소독제"로 직접키운 명품장어입니다. 무항생제 장어 최고 품질! 장어명가 청산 광주점에서 모시겠습니다.**